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의료 10% 할인
병원/약국/안경

학원 5% 할인
학원/안경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상세보기

SPORTS is BUSAN

부산광역시체육회 × BN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로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68 (심의일자 2024.10.17) 유효기간: 2024.10.25 ~ 2025.10.24
연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10.25 ~ 2025.10.24)

부산체육
2025. 02 Vol. 75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75**
2025. 02

체전은 지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배경

푸른 바다, 큰꿈
광남초등학교 스키부

Sports is Busan
2025년 부산지역 스키대회

160ft
distance

345m/s
shoot speed

1

2

3

150m
penalty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02 Vol. 75

발행일 2025년 2월 14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75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김도희,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배정
- 06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검도회 허문희 회장
- 10 금빛 훈련일지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자 테니스팀
- 14 푸른 바다, 큰 꿈
광남초등학교 스키부

산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18 경기장 밖 부산
부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와 여행의 완벽한 조화 - 동구 & 영도구
- 22 Sports is Busan
2025년 부산지역 스키대회
- 26 전국체전 trivia
전국체육대회
-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부산전문화원 택견반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4 스포츠 안전상식
한랭질환 응급처치 가이드
- 38 종목 소개
바이애슬론
- 42 스포츠&컬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부산광역시체육회 「3대 전략 6대 혁신과제」 발표
-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운영 프로그램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6 부산체육인



10 금빛 훈련일지



22 Sports is Busan



32 함께하는 부산체육



39 종목 소개



40 종목 소개



47 BSC 뉴스



55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현황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배정

부산광역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장인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28명의 고문,

6명의 부위원장과 10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직위원회와 전국체전기획단은 대회 종합계획 수립부터

홍보 영상 제작,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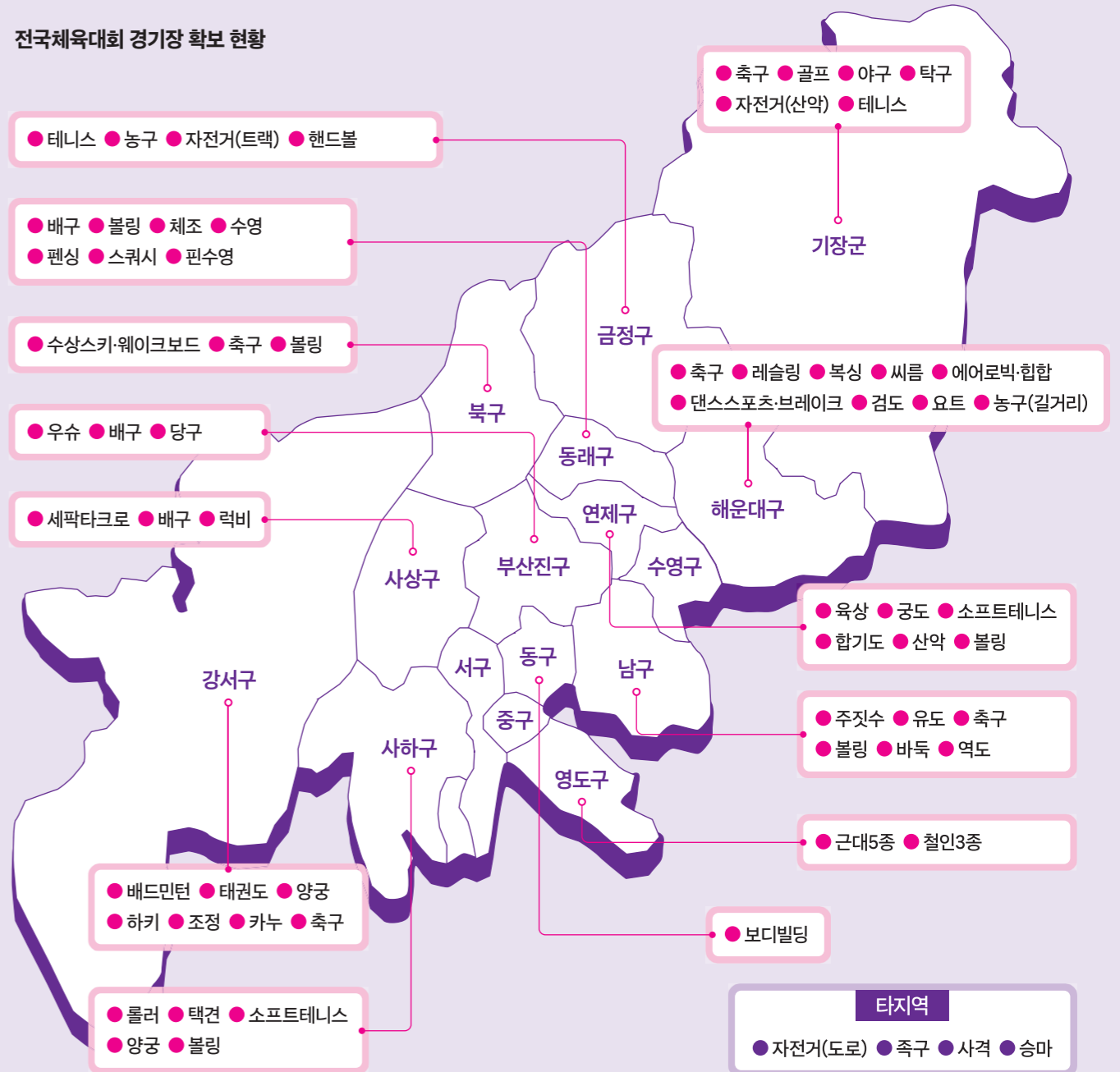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 배정 | | | | | | | | | | |
|-------------------------|-----------|-------------------|------------|------------|----------------|---------------|---------------|---------------|-----|---------------|
| 종목 | 종별 | 경기장 | 종목 | 종별 | 경기장 | 종목 | 종별 | 경기장 | | |
| 검도 | 전종별 | 해운대한마음센터체육관 | 사격 | 전종별 | 창원국제사격장 | 족구 | 남자부 |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 |
| 골프 | 전종별 | 아시아드 C.C | 산악 | 전종별 | 사직종합운동장 중앙광장 | 여자부 | | 동원과학기술대 체육관 | | |
| 궁도 | 전종별 | 사직정 | 세팍타크로 | 전종별 | 동서대학교 체육관(1층) | 철인3종 | 전종별 | 국립해양박물관 일원 | | |
| 근대5종 | 수영 | 부산체육고등학교 | 소프트 테니스 | 전종별 | 울속도공원 테니스장 | 체조 | 전종별 | 사직실내체육관 | | |
| | 레이저런 장애물 | | 연습구장 | 사직소프트테니스장 | 연습구장 | 기장월드컵빌리지(인조A) | | | | |
| | 펜싱 | | 광명고등학교 체육관 | 수상스키 | 전종별 | 화명수상레포츠타운 | 남18세이하 | 기장월드컵빌리지(인조B) | | |
| 농구 | 일반부 | 부산대학교 체육관 | 수영 | 전종별 | 사직실내수영장 | 남자일반부 | 기장월드컵빌리지(천연A) | | | |
| | 고등부 | 부산외국어대학교 체육관 | 스쿼시 | 전종별 | 동래사적공원 | 연습구장 | 기장월드컵빌리지(천연B) | | | |
| | 3x3 (3인제) | 영화의전당 | 승마 | 전종별 | 상주국제승마장 | 화명생태공원 축구장(C) | | | | |
| 당구 | 전종별 | 동의대학교 체육관 | 씨름 | 전종별 | 백스코 제2전시관(5B) | 여18세이하 | 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 | | |
| 댄스스포츠 | 전종별 | 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 | 야구소프트볼 | 일반부 |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천연) | 남자대학부 | 동명대학교 축구장 | | | |
| 럭비 | 전종별 | 삼락생태공원 천연구장(C, D) | | 고등부 |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B | 여자일반부 | 부경대학교 축구장 | | | |
| 레슬링 | 전종별 | 백스코 제2전시관(5D, 5E) | | 전종별 | 기장 소프트볼 경기장 | 연습구장 | 명지근린공원 축구장 | | | |
| 롤러 바둑 | 전종별 | 울속도 롤러스케이트장 | 양궁 | 전종별 | 울속도체육공원 축구장 | 연습구장 | 백운포체육공원 1구장 | | | |
| 배구 | 남고 | 동래중학교 체육관 | 전종별 | 연습장 | 강서체육공원 양궁장 | 여자대학부 | 백운포체육공원 2구장 | | | |
| | 여고/여일 | 학생교육문화회관 | 에어로빅합합 | 전종별 | 백스코 제2전시관(5A) | 해외동포부 | 해운대수목원 축구장 | | | |
| | 남대/남일 | 동서대학교 체육관(3층) | 역도 | 전종별 | 남구국민체육센터(2관) | 카누 | 전종별 | 서낙동강카누경기장 | | |
| 배드민턴 | 전종별 |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 요트 | 전종별 | 수영요트경기장 | 탁구 | 전종별 | 기장실내체육관 | | |
| 보디빌딩 | 전종별 | 부산시민회관 | 우슈 | 전종별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 | 태권도 | 전종별 |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 | |
| 복싱 | 전종별 | 백스코 제2전시관(5C) | 유도 | 전종별 | 부경대학교 체육관 | 택견 | 전종별 | 부산보건대학교 체육관 | | |
| | 고등부 | 코오롱스포렉스 | 육상 | 트랙 | 아시아드주경기장 | 테니스 | 전종별 | 스포원파크(12면) | | |
| | 대학부 | 삼성볼링장 | | 마라톤 | 코스 검도 중 | | 전종별 | 기장 테니스 경기장 | | |
| 남일부 | 레인보우스퀘어락 | 경보 | | 코스 검도 중 | 전종별 | | 사직실내체육관 | | | |
| 볼링 | 여일부 | 대연컨스볼링장 | 트랙 | 스포원파크 사이드룸 | 핀수영 | 전종별 | 사직실내수영장 | | | |
| | 해외동포 | 하단평기라볼링장 | 자전거 | 도로 | 경남 김해시 일원 | 하키 | 전종별 | 강서체육공원 하키경기장 | | |
| | | | 조정 | 전종별 | 테마임도MTB경기장 | 합기도 | 전종별 | 부산교육대학교 체육관 | | |
| | | | | | 조정 | 전종별 | 서낙동강조정경기장 | 핸드볼 | 전종별 | 스포원파크 금정실내체육관 |
| | | | | | | | | 주짓수 | 전종별 | 동명대학교 실내체육관 |

※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0개 종목 경기장 선정

국내 최대 종합 스포츠 축제 '전국체육대회'(10월 17일~23일)가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안전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기장 안전 점검 및 매뉴얼 작성 등 완벽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먼저, 종목별 경기장을 찾기 위한 관내 체육시설 기초 전수조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종목단체와 협의하여 경기장의 적합성 여부,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현재 관내 경기장 확보, 시설의 개·보수를 비롯해 사격, 승마 등 전문체육시설 구성이 어려운 종목에 대비하여 타 지역의 경기 공간 임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종목별 경기장 최종 배정 및 공·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확보 현황





부산 검도, 다시 봄날을 맞이하다

부산광역시검도회 허문회 회장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검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발을 구르고 있는 허문회 회장. 검도를 한 지 40년이 넘었다는 그에게서 오랜 세월만큼 깊어진 검도에 대한 애정과 부산광역시검도회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검도라는 운동의 저변 확대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문회 회장이 부산광역시검도회 회장 경선에서 선출되며 밝힌 각오다. 사실 그는 앞서 2010년에 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생활체육 회장을 비롯해 검도회 부회장, 이사 등의 직책을 역임하며 연례 부산광역시검도회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는 그때부터 무려 7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지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회장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집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문회 회장이 부산광역시검도회 운영에 있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검도인의 화합’이다. 어느 집단이든 그 안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쫓는다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화합’이 이루어진다면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며 허문회 회장은 생활체육인과 경기인 간의 화합, 학교체육과 회원종목단체 간의 화합을 바탕에 두고 검도 종목의 활성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급하게 서둘러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끈기를 가지고 화합을 이뤄낼 거라며 사업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화합을 이루기 위한 첫발로 ‘합동 연습’을 구상 중이다. 합동 연습은 생활체육 동호인과 전문선수 간 실력 차이와 상관없이 한데 모여 연습하는 것으로, 검도회의 전통 행사였으나 여러 이유로 중단된 상황이었다. 허문회 회장은 합동 연습이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더라도 필연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 역시 회장직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여러 차례 겪었고, 어떨 땐 속이 상



해 ‘내가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생각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가 또다시 회장을 맡아 검도인의 화합, 검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검도라는 운동이 정말 좋은 운동이기 때문이다.

검도인이 된 태권 소년

허문회 회장은 중학생 때까지 태권도를 했었다. 부산 대표로 선발돼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나가 입상했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는데, 태권도 실력 못지않게 학업 성적도 좋았던 그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에 입학했다. 부모님의 만류가 아니었다면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해 태권도 선수가 되었을 거란 허문회 회장. 그는 대학교에서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어 계속 태권도를 하다가 우연히 의과대학에 검도 동아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찾아갔다.

“예전부터 검도를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곳이 없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검도장이 전국에서 몇 군데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검도 동아리에 끼서 검도를 시작했던 때가 1983년. 그 때부터 지금까지 검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검도 붐이 일었던 건 1995년에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된 이후라고 한다. 그전까지는 몇몇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취미로 즐기는 운동이었다. 검도라는 종목 자체가 생소하던 때에 태권 소년이었던 허문회 회장이 검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어릴 때부터 체격이 큰 편이 아니었고, ‘검’이라는 매개체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린 마음에 검도가 왠지 고급스러워 보여서 언젠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검도가 훌륭한 운동이라는 걸 깨달았다.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머리를 쓰는 것도 재미있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니 타격이 있어도 비교적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방 훈련(공격 방어 반복)’은 1분만 해도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다. 무엇보다 나이와 체력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하며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검도 8단 심사를 준비하며 일주일에 몇 번씩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허문회 회장 자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검도를 해본 사람은 모두 ‘이 운동 진짜 괜찮구나’라고 느낍니다. 나이 때문에 망설이던 분들도 막상 해보니 좋아서 주변에 자랑을 하세요. 친구의 권유로 60이 넘어서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희망의 씨앗과 단단한 각오

한때 부산 검도는 전국 대회 우승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월등한 실력을 자랑했다. 일본과 거리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검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 부산 검도는 꽤 오랜 기간 침체기를 맞았다고 한다. 또 2010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경기 침체로 인해 검도 인구가 많이 줄었다.

“가계 형편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게 예체능 과외입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얼마 전 고등학교 1개 팀이 없어지면서 현재 부산의 검도팀은 중학교 2개 팀, 고등학교 1개 팀, 대학교 2개 팀, 남녀 실업팀이 부산 검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구마다 1개 이상의 검도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앞으로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건 몇 년 전부터 서준배 감독이 이끌고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으로 인해 부산 검도의 위상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준배 감독의 세계 대회 입상과 더불어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이 전국 대회에서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허문회 회장은 이를 계기로 부산 검도가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자신 역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어떤 일이든 명암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팀이 많으면 선발 과정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팀이 없으면 실력이 침체되죠. 학교체육만 신경 쓰면 가맹단체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산이든 사업이든 균형을 잘 맞춰 검도인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허문회 회장은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 결국 꾸준히 해온 사람의 실력이 낫더라고 한다. 검도에 대한 애정을 한평생 키워온 그이기에 그의 각오는 더욱 힘 있고 단단했다.

부산 테니스의 새 역사,
날갯짓을 시작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자 테니스팀



2025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테니스 실업팀 창단을 발표했다. 촬영 내내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지만, 라켓을 쥐는 순간 진지한 눈빛으로 빛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자 테니스팀의 열정을 만나볼 수 있었다.

창단 첫해, 부산 테니스의 미래를 향한 힘찬 포부

새해와 함께 첫발을 내딛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자 테니스팀의 초대 감독으로는 과거 부산 금정구청 선수로 활약했던 나두리 감독이 선임되었다. 나 감독은 구서여중 테니스팀에서 10년간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주니어 국가대표 지도자와 국가대표 상비군 지도자를 역임하며 폭넓은 지도 경험을 쌓아왔다. 나 감독은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수익금을 지역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체계도 새로운 도전이에요. 창단 첫해에 초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어 굉장히 설렙니다. 구서여중 등 다양한 곳에서 쌓아온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수준 높고 정교한 훈련 방식으로 팀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선수들과 소통하고 함께 뛰면서 저희 팀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나아가 부산 엘리트 테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 유소년 선수 인재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해서 초·중·고와 대학, 부산광역시체육회 테니스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나두리 감독

창단 첫해 팀에는 장아영, 이은지, 류하영 세 명의 선수가 합류했다.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실업 무대에 진출해 풍부한 대회 경험을 자랑한다. 나 감독의 목소리에는 선수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팀워크가 훌륭하고,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류하영 선수는 볼 터치감이나 기술적인 테크닉이 좋은 편이고, 이은지 선수는 장신이라는 신체 조건을 활용한 파워풀하고 공격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장아영 선수는 발리와 네트 플레이에 강점을 가진 선수여서, 복식 경기에서 특히 돋보이죠.”

현재 팀은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테니스에서 중요한 기술, 전술, 심리, 신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경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 중이며, 온코트 트레이닝을 통해 테니스에 특화된 신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이 코트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은지 선수

“남은 동계 훈련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각자가 목표한 바를 잘 이루어 나가면 좋겠어요.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창단 멤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즌을 멋지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3인 3색의 시너지로 하나의 목표를 그리다

10년 이상의 운동 경력을 가진 세 선수는 저마다 다른 실업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은지 선수 테니스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시합에 들어가서는 혼자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겨냈을 때의 뿌듯함이 제가 생각하는 테니스의 매력이에요.

류하영 선수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과 공을 주고받으며 심리전을 펼치는 게 테니스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장아영 선수 테니스는 배우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하나 알아갈 때의 재미와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이 남다른 게 테니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창단 첫해 부산광역시체육회 테니스팀에 입단하게 된 세 선수는 입을 모아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장아영 선수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장아영 선수 테니스 동호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이 코트에

서 처음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그 후로 여러 지역팀을 거쳐 성인이 되어 다시 고향인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제가 구서여중을 다닐 때 지금의 나두리 감독님이 제 선생님이셨어요. 학창 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께 이렇게 다시 배우게 된다는 게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현재 팀에 소속된 후 달라진 점에 대해 묻자, 세 선수는 하나같이 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이전에는 주로 다양한 나이의 선수들과 함께했던 반면, 지금은 또래 선수끼리 모여 대화도 잘 통하고 열정적이며, 팀워크를 맞추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은지 선수는 훈련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했다.

이은지 선수 코트 같은 운동 시설이 잘되어 있고, 숙소와 코트의 거리도 가까워서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좋습니다.

운동 경력, 테니스의 능력치, 성격까지 각기 다른 세 명의 또래 선수가 모여, 훈련 속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부족한 점은 동료로 보며 보완하고, 때로는 진지한 피드백과 코칭을 주고받으며 함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서로에게 배우고 싶은 점으로는 류하영 선수의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백핸드, 이은지 선수의 강한 서브, 장아영 선수의 넷 플레이를 언급했다. 운동뿐 아니라 성격 면에서도 각자의 강점과 매력을 존중하며 서로의 성장을 복돋우는 모습이 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

이은지 선수 감독님의 성실한 모습과 아영 언니의 카리스마, 그리고 하영 언니의 포커페이스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합 중에 표정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를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으면 상대 선수에게도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배우고 싶어요.



류하영 선수

류하영 선수 저는 에너지가 높은 편이 아니라, 은지의 활기차고 파워풀한 모습이 좋아 보여서 좀 닮고 싶어요. 그리고 아영이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모습이 배울 만하고요.

홍코트의 주인공,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
부산광역시체육회 테니스팀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실전과 유사한 긴장감 있는 연습 경기를 진행하며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술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홍코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수들은 미리 코트에 적응하며 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력 강화와 부상 방지를 위한 신체 밸런스 트레이닝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각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류하영 선수 포핸드를 안정성 있고 공격적으로 칠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장아영 선수 체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야간에 운동을 더 보충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은지 선수 저는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고, 경기 상황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경기 중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저만의 루틴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올 한 해 목표를 묻자, 세 선수는 모두 전국체육대회 입상과 개인 랭킹을 올리고 싶다는 대답과 함께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장아영 선수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선수로 참가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류하영 선수 첫 창단에 부산 홈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러 와 주실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지 선수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팀 선수들에게 ‘저 친구 많이 좋아졌구나.’ 말을 들을 만큼 성장하고, 좀 더 나은 딸이 되고 싶습니다.



장아영 선수



대한민국 가장 따뜻한 도시
부산 최초! 초등 스키부 나가신다

광남초등학교 스키부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 스키.
레저로의 인기는 지역을 가리지 않지만
대한민국 가장 따뜻한 지역인 부산에는
스키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학교팀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22년, 부산시 최초 초등 스키부가
광남초등학교에서 창단했고
매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훈련에 임하고 있다.
2025년에도 활발한 활동과 수상을 예고하는
광남초등학교 스키부를 만나 보자.

대한민국 가장 따뜻한 도시, 최초의 초등 스키부

광남초등학교 스키부는 2022년 7월 13일, 알파인 선수 2명, 크로스컨트리 선수 3명(바이애슬론 병행) 총 5명의 선수로 부산 최초 스키부를 창단했다. 현재는 알파인 선수 1명(남 1), 크로스컨트리 선수 7명(남 4, 여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키가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이고 설산이 주 무대인 만큼, 비교적 따뜻한 지역인 부산에는 초등학교 스키팀이 없었다. 부산 최초 초등 스키부를 맡아 운영하게 된 윤대근 지도교사의 책임감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스키부가 창단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산 최초 초등 스키부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여러모로 막막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다른 팀의 사례를 보고 배우면서 팀을 꾸려왔는데, 선수들이 저를 잘 따르고 훈련도 열심히 해준 덕분에 지금까지 원활하게 스키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54회 대한스키협회장배 대회 계주 1위,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프린트와 계주에서 각각 2위와 3위, 부산시교육감·시장·협회장배 스키대회 알파인 스키 부문에서 남자 2위, 부산시교육감·시장배 스키대회 크로스컨트리 부문에서 남녀 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성



과를 이뤘습니다.”

스키에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도 광남초등학교 스키부는 크로스컨트리를 주 종목으로 한다.

“스키는 크게 알파인과 크로스컨트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스키부는 ‘눈 위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크로스컨트리를 주 종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바이애슬론도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간 겹치는 훈련이 많아서 병행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크로스컨트리는 경사를 포함한 15km가량의 구간을 주파하는 경기로, 강한 체력과 인내심을 요합니다. 끈기와 노력이 성적에 직결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경기 외적인 교훈도 줄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 개성 있는 선수들

스키 선수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균형감각과 하체 근력, 견고한 코어는 물론, 순간적인 변수에 대처하는 순발력, 동작을 매끄럽게 구사하기 위한 유연성까지 단련해야 한다. 성격 역시 기록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선수의 개성에 따라 스키 스타일이 뚜렷하게 나뉜다.

“우리 스키부 주 종목은 크로스컨트리지만, 알파인 스키를 주 종목으로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박우현 선수는 단거리 기록 경기에 꼭 필요한 강한 승부욕을 갖춘 선수라,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편입하지 않고 알파인 스키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어 근력이 강해 앞으로 회전 종목에 강점을 보일 것 같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종목 선수들



도 저마다 특징점이 뚜렷합니다. 안양휘 선수는 클래식 주법에 강점이 있고 이하울 선수는 배운 것을 체화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하랑 선수는 성실과 끈기가 장점이고 최준영 선수는 과묵하지만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른데다. 오선비 선수는 운동 신경이 탁월해 기술 구사력이 좋고 최지영 선수는 팀 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슬기 선수는 뛰어난 운동능력과 승부욕을 바탕으로 단체전에서 격차를 좁히거나 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이렇게 뚜

렷하니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그 강점을 살려 더욱 뛰어난 선수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준수한 성적 뒤 숨은 공신들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데에는 선수들의 노력과 화목한 팀 분위기가 바탕이 되었다는 윤대근 지도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애쓰는 숨은 공신들도 있다고 말한다.

“먼저 선수들에게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늘 자신감을 심어주는 서정륜 지도자와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린 선수들이라 실수했을 때나 기록이 좋지 않을 땐 주눅들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수들이 지도자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장 선생님과 학교 식구들, 또 우리 스키부를 믿고 선수들의 지도를 일임해주신 학부모님들 역시 광남초등학교 스키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저 역시 이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전지훈련을 비롯해 준비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광남초등학교 교장

광남초등학교 스키부는 부산시 최초 초등 스키부라는 타이틀에 따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창단한 이래 현재까지 대회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선수들이 노력한 덕분에 여러 차례 수상도 해왔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물론 기쁘지만 그 과정 또한 결과 못지않게 중요함을 선수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경쟁보다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스키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 구경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스키부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도 늘 웃는 얼굴로 열심히 실력을 갈고닦는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수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

선수 인터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남초등학교 6학년 안양휘입니다. 스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형과 아버지의 권유로 스키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기록이 단축되는 데에서 스키의 매력을 느꼈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선수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양휘 선수에게 스키란?

스키란 내 인생의 추억입니다. 스키를 시작하고부터 행복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스키를 타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훈련을 주로 하고 있는지? 기록 향상을 위한 비법이 있다면?

인터벌, 스피드, 거리주행 등 기록 향상을 위한 스키 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법이랄 것은 따로 없고 코치님의 지도에 잘 따르면서 열심히 하는 게 전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포부 한마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인내하겠습니다. 모든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경기에 임할 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형, 누나, 동생 그리고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남초등학교 스키부 수상 내역

제32회 부산광역시장배, 제18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제39회 부산광역시스키협회장배

알파인
남자 초등 3부 1위

제32회 부산광역시장배, 제18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크로스컨트리
남자 1, 2위

제33회 부산광역시장배, 제19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제39회 부산광역시스키협회장배

알파인
남자 초등 3부 2위

제33회 부산광역시장배, 제19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제39회 부산광역시스키협회장배

크로스컨트리
남자 2위, 3위 / 여자 2위, 3위

부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와 여행의 완벽한 조화 동구 & 영도구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중 영도구와 동구는 다채로운 스포츠 경기와 함께 독특한 관광 명소들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의 열기를 만끽한 뒤, 부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동구



부산시민회관 보디빌딩

▶ 경기장
● 관광 명소

보디빌딩 대회 보고, 동구의 매력에 빠져보자!

2025년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 대회가 열리는 부산시민회관! 이곳은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부산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상징적인 공간이다. 부산시민회관은 1967년 개관 이후 다양한 문화 행사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며 역사와 전통을 쌓아왔다. 특히 보디빌딩 대회와 같은 피트니스 행사가 수차례 열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전국체전 보디빌딩 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부산과 보디빌딩 대회의 역사적 연관성도 깊다. 2002년 아시안 게임에서 보디빌딩은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때 보디빌딩 대회가 열린 곳이 바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이었다. 매년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시장배 보디빌딩 대

회 또한 뛰어난 시설과 훌륭한 운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25년 전국체전 보디빌딩 대회 또한 선수들의 열정과 기량이 빛나는 무대가 될 뿐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짜릿한 순간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부산 동구의 숨은 매력을 탐험하며 특별한 하루를 완성해보자.

보디빌딩 대회 관람 후 떠나는 동구 여행

보디빌딩 대회가 끝난 뒤, 부산 동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추천한다. 부산시민회관과 가까운 동구는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공간이다. 경기를 관람하며 받은 에너지를 동구 여행으로 이어가 보자.

1. 초량 차이나타운: 한국 속 작은 중국

부산역 근처 초량 차이나타운은 부산 동구를 대표하는 이국적인 공간이다. 1884년 청나라 영사관 설치 이후 형성된 이곳은 화려한 패루와 다양한 중국 음식점으로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매콤한 마라탕이나 정통 자장면 한 그릇이면 여행의 피로가 싹 날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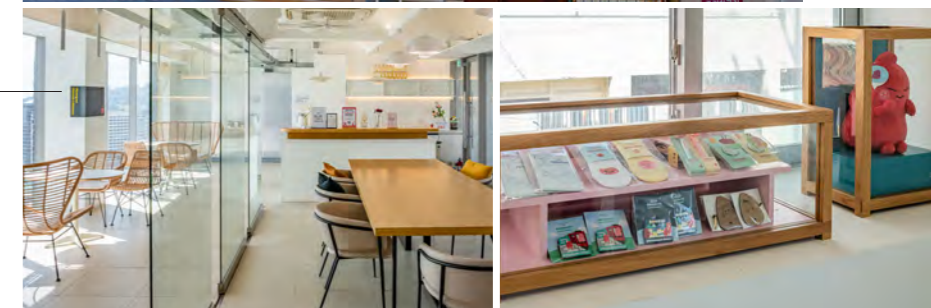
2. 정란각(문화공감 수정): 역사를 담은 공간

조용하고 고즈넉한 정란각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거주했던 곳으로, 전통 일본식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된 공간이다. 목조 건축물 사이를 거닐며 부산이 지나온 역사의 흔적을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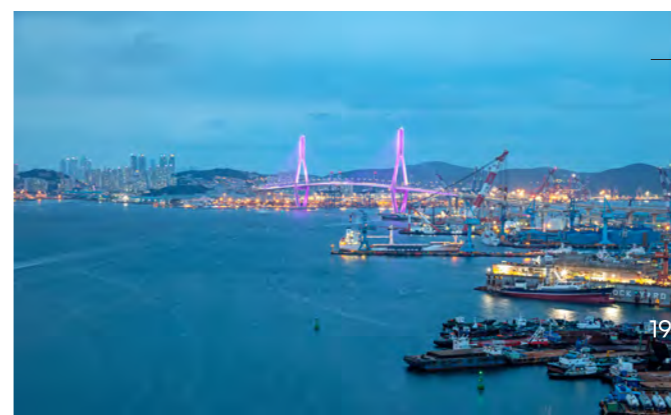
3. 명란브랜드연구소: 색다른 미식 경험

명란브랜드연구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명란 전문 체험 공간으로, 명란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명란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직접 명란을 활용한 요리 체험도 가능하다.



4. 부산항대교 야경: 동구의 밤을 빛내다

동구 여행의 마지막은 부산항대교 야경이다. 봉래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부산항대교는 빛의 예술 작품 그 자체다. 다리와 항구의 불빛이 어우러진 풍경은 낮의 부산과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철인3종

▶ 경기장
● 관광 명소

영도구, 2025 전국체전의 중심지로 떠오르다

2025년 전국체전에서 영도구는 스포츠와 바다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도구의 자연환경은 근대5종(수영, 육상, 사격, 펜싱, 장애물), 철인3종(수영, 자전거, 마라톤) 등 다양한 종목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체육고등학교, 광명고등학교,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이 주요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는 근대5종의 수영, 레이저런(육상, 사격), 장애물 경기가 열린다. 이 학교는 50m, 8레인의 수영장, 총 8개 공인 트랙을 갖춘 운동장, 총 20사대를 갖춘 10m의 사격장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스포츠 시설은 선수들에게 최상의 경기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광명고등학교에서는 근대5종의 펜싱 경기가 진행된다. 두 학교는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며,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스포츠의 매력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는 철인3종 경기가 열린다. 수영, 자전거, 마라톤을 연달아 진행하는 이 경기는 선수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영도구의 해양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맑고 드넓은 바다에서 시작되는 코스는 부산의 해양 도시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관람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전국체전과 함께 떠나는 영도 여행

2025년 전국체전이 열리는 부산 영도구는 스포츠 경기를 즐긴 뒤 방문하기 좋은 매력적인 명소가 가득하다. 경기 관람 후 여유롭게 둘러볼 만한 대표적인 장소 네 곳을 소개한다.



1. 태종대: 기암절벽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절경

영도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로, 기암절벽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이다. 태종대 전망대에서 바다를 감상하거나 '다누비 열차'를 타고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다. 경기 후 힐링을 원한다면 태종대는 필수 코스다.

2. 현어울문화마을: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감성

아기자기한 골목과 감성적인 벽화가 있는 현어울문화마을은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골목 사이로 보이는 바다 풍경과 카페, 갤러리는 여유로운 산책과 사진 촬영에 제격이다.



3. 국립해양박물관: 해양 도시 부산의 심장

철인3종 경기가 열리는 이곳은 경기 관람 후 들르기 좋다. 해양 생물 표본과 전시를 통해 해양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주변 해안 산책로도 잘 정비돼 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도 좋다.



4. 영도대교: 바다 위에 펼쳐진 역사의 다리

우리나라 최초의 도개교인 영도대교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 번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특별한 장면을 볼 수 있다. 경기의 열기를 이어 주변 자갈치시장이나 부산항대교도 함께 둘러보면 좋다.





2025년 부산지역 스키대회



매년,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추위가 절정에 달하는 1월이면 부산시 스키대회가 열린다. 올해에는 제33회 부산광역시장배 스키대회와 제19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스키대회, 제39회 부산스키협회장배 스키대회가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되었으며, 게이트를 통과하며 슬로프를 내려가는 경기인 알파인과 '스키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크로스컨트리 두 종목에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또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을 겸해 더욱 뜨거운 열기를 띠었다.

지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변함없는 실력을 증명했다. 지난 대회 4관왕을 거머쥐었던 부산 스키 크로스컨트리의 간판 이의진(부산광역시체육회)과 허부경(부산진여고)은 제33회 부산광역시장배 스키대회 크로스컨트리 종목 각각 여자 일반부와 여자 고등부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대회에서 팀전을 비롯해 부산에는 2개와 동 3개를 안겨준 정종원(부산광역시체육회) 역시 남자 일반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체전 부산 알파인 스키의 유일한 메달리스트였던 강영서(부산광역시체육회) 역시 협회장배 여자 청년부 1위를 차지했다.

학생부 크로스컨트리에서는 광남초등학교와 신도중학교의 압도적인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2022년 40여 년 만에 부산에 처음으로 창단된 초등 스키부인 광남초등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로 부산 스키의 미래를 밝히고 있으며, 신도중학교 역시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남초-신도중-대연고-부산진여고-부산광역시체육회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지난 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의 메달 수확에 큰 역할을 했다고 꼽히는 만큼, 앞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펼쳐질 부산 스키팀의 선전을 더욱 기대해 본다.



제33회 부산광역시장배 스키대회

크로스컨트리

| 순위 | 이름 | 소속 | 학년 | 기록 |
|----|----|----|----|----|
|----|----|----|----|----|

남자 초등

| | | | | |
|---|-----|--------|---|----------|
| 1 | 서승민 | 정관초등학교 | 6 | 05:29.25 |
| 2 | 안양휘 | 광남초등학교 | 6 | 06:47.43 |
| 3 | 이하울 | 광남초등학교 | 5 | 08:56.99 |

여자 초등

| | | | | |
|---|-----|--------|---|----------|
| 1 | 전아림 | 남산초등학교 | 6 | 06:04.49 |
| 2 | 오신비 | 광남초등학교 | 5 | 07:45.39 |
| 3 | 조슬기 | 광남초등학교 | 4 | 11:02.80 |

남자 중등

| | | | | |
|---|-----|-------|---|----------|
| 1 | 전준상 | 신도중학교 | 3 | 15:37.26 |
| 2 | 김성찬 | 신도중학교 | 1 | 15:47.85 |
| 3 | 장우재 | 신도중학교 | 1 | 16:03.97 |

여자 중등

| | | | | |
|---|-----|-------|---|----------|
| 1 | 김재이 | 신도중학교 | 1 | 25:32.67 |
|---|-----|-------|---|----------|

남자 고등

| | | | | |
|---|-----|-----------|---|----------|
| 1 | 안지환 | 부산광역시스키협회 | 2 | 19:36.70 |
|---|-----|-----------|---|----------|

여자 고등

| | | | | |
|---|-----|-----------|---|----------|
| 1 | 허부경 | 부산진여고 | 3 | 36:50.15 |
| 2 | 편다현 | 부산광역시스키협회 | 2 | 20:58.72 |

남자 일반

| | | | | |
|---|------|-----------|---|----------|
| 1 | 정종원 | 부산광역시체육회 | - | 27:55.71 |
| 2 | 김영규 | 부산광역시체육회 | - | 29:28.37 |
| 3 | 안드레이 | 부산광역시스키협회 | - | 29:45.14 |

여자 일반

| | | | | |
|---|-----|----------|---|----------|
| 1 | 이의진 | 부산광역시체육회 | - | 30:46.34 |
|---|-----|----------|---|----------|

알파인

| 순위 | 이름 | 소속 | 학년 | 기록(TOTAL) |
|----|----|----|----|-----------|
|----|----|----|----|-----------|

남자 중년부

| | | | | |
|---|-----|---|---|--------|
| 1 | 김동오 | - | - | 49.396 |
|---|-----|---|---|--------|

남자 청년부

| | | | | |
|---|-----|---|---|--------|
| 1 | 전준식 | - | - | 56.968 |
|---|-----|---|---|--------|

남자 대학부

| | | | | |
|---|-----|---------|---|--------|
| 1 | 김동현 | 한국체육대학교 | 1 | 44.261 |
|---|-----|---------|---|--------|

남자 중학부

| | | | | |
|---|-----|--------|---|--------|
| 1 | 김기영 | 해운대중학교 | 2 | 46.289 |
| 2 | 천지우 | 신도중학교 | 2 | 47.659 |
| 3 | 권윤 | 하남중학교 | 3 | 49.604 |

여자 중학부

| | | | | |
|---|-----|-------|---|--------|
| 1 | 조연서 | 명지중학교 | 1 | 51.164 |
|---|-----|-------|---|--------|

남자 초등 1부(1~2학년)

| | | | | |
|---|-----|--------|---|---------|
| 1 | 김민준 | 강동초등학교 | 2 | 01:01.0 |
| 2 | 이지호 | 광안초등학교 | 1 | 01:02.1 |
| 3 | 서이준 | 해원초등학교 | 1 | 01:19.4 |

여자 초등 1부(1~2학년)

| | | | | |
|---|-----|--------|---|---------|
| 1 | 조현서 | 동래초등학교 | 2 | 54.541 |
| 2 | 박지수 | 강동초등학교 | 2 | 01:08.6 |
| 3 | 김하령 | 금빛초등학교 | 1 | 01:08.7 |

남자 초등 2부(3~4학년)

| | | | | |
|---|-----|--------|---|--------|
| 1 | 김지완 | 안진초등학교 | 4 | 50.354 |
| 2 | 조현준 | 동래초등학교 | 4 | 50.528 |
| 3 | 이윤우 | 센텀초등학교 | 4 | 52.774 |

여자 초등 2부(3~4학년)

| | | | | |
|---|-----|--------|---|--------|
| 1 | 김세령 | 금빛초등학교 | 3 | 55.382 |
| 2 | 이다인 | 동성초등학교 | 3 | 55.505 |
| 3 | 구다연 | 해원초등학교 | 4 | 55.853 |

남자 초등 3부(5~6학년)

| | | | | |
|---|-----|--------|---|--------|
| 1 | 김준우 | 동래초등학교 | 5 | 48.233 |
| 2 | 박우현 | 광남초등학교 | 6 | 48.825 |
| 3 | 곽태원 | 광남초등학교 | 6 | 49.639 |

여자 초등 3부(5~6학년)

| | | | | |
|---|-----|--------|---|--------|
| 1 | 최서영 | 동성초등학교 | 6 | 54.617 |
| 2 | 안소은 | 강동초등학교 | 5 | 56.463 |
| 3 | 윤서하 | 동성초등학교 | 6 | 56.471 |

제19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스키대회

크로스컨트리

| 순위 | 이름 | 소속 | 학년 | 기록 |
|----|----|----|----|----|
|----|----|----|----|----|

남자 초등

| | | | | |
|---|-----|--------|---|----------|
| 1 | 서승민 | 정관초등학교 | 6 | 03:35.42 |
| 2 | 안양휘 | 광남초등학교 | 6 | 04:24.12 |
| 3 | 이하울 | 광남초등학교 | 5 | 05:28.67 |

여자 초등

| | | | | |
|---|-----|--------|---|----------|
| 1 | 전아림 | 남산초등학교 | 6 | 04:00.94 |
| 2 | 오신비 | 광남초등학교 | 5 | 04:51.87 |
| 3 | 조슬기 | 광남초등학교 | 4 | 06:49.31 |

남자 중등

| | | | | |
|---|-----|-------|---|----------|
| 1 | 전준상 | 신도중학교 | 3 | 03:05.28 |
| 2 | 김성찬 | 신도중학교 | 1 | 03:18.70 |
| 3 | 장우재 | 신도중학교 | 1 | 03:27.19 |

여자 중등

| | | | | |
|---|-----|-------|---|----------|
| 1 | 김재이 | 신도중학교 | 1 | 04:21.63 |
|---|-----|-------|---|----------|



알파인

| 순위 | 이름 | 소속 | 학년 | 기록(TOTAL) |
|----|----|----|----|-----------|
|----|----|----|----|-----------|

남자 중학부

| | | | | |
|---|-----|--------|---|--------|
| 1 | 김기영 | 해운대중학교 | 2 | 46.455 |
| 2 | 천지우 | 신도중학교 | 2 | 47.524 |
| 3 | 최재윤 | 부산동중학교 | 3 | 50.37 |

여자 중학부

| | | | | |
|---|-----|-------|---|--------|
| 1 | 조연서 | 명지중학교 | 1 | 51.906 |
|---|-----|-------|---|--------|

남자 초등 1부(1~2학년)

| | | | | |
|---|-----|--------|---|---------|
| 1 | 김민준 | 강동초등학교 | 2 | 01:00.8 |
| 2 | 이지호 | 광안초등학교 | 1 | 01:03.4 |
| 3 | 김민준 | 동평초등학교 | 2 | 01:18.4 |

여자 초등 1부(1~2학년)

| | | | | |
|---|-----|--------|---|---------|
| 1 | 조현서 | 동래초등학교 | 2 | 54.385 |
| 2 | 박지수 | 강동초등학교 | 2 | 01:08.3 |
| 3 | 김하령 | 금빛초등학교 | 1 | 01:09.1 |

남자 초등 2부(3~4학년)

| | | | | |
|---|-----|--------|---|--------|
| 1 | 김지완 | 안진초등학교 | 4 | 49.922 |
| 2 | 조현준 | 동래초등학교 | 4 | 51.197 |
| 3 | 이윤우 | 센텀초등학교 | 4 | 52.295 |

여자 초등 2부(3~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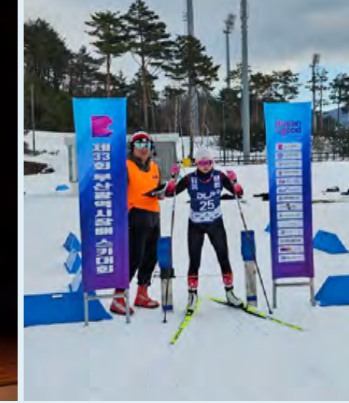
| | | | | |
|---|-----|--------|---|--------|
| 1 | 이다인 | 동성초등학교 | 3 | 55.04 |
| 2 | 구다연 | 해원초등학교 | 4 | 55.466 |
| 3 | 김세령 | 금빛초등학교 | 3 | 55.695 |

남자 초등 3부(5~6학년)

| | | | | |
|---|-----|--------|---|--------|
| 1 | 김준우 | 동래초등학교 | 5 | 48.22 |
| 2 | 박우현 | 광남초등학교 | 6 | 48.863 |
| 3 | 한준서 | 동래초등학교 | 5 | 50.407 |

여자 초등 3부(5~6학년)

| | | | | |
|---|-----|--------|---|--------|
| 1 | 최서영 | 동성초등학교 | 6 | 54.569 |
| 2 | 윤서하 | 동성초등학교 | 6 | 55.938 |
| 3 | 안소은 | 강동초등학교 | 5 | 56.063 |



제39회 부산광역시스키협회장배 스키대회

알파인

| 순위 | 이름 | 소속 | 학년 | 기록(TOTAL) |
|----|----|----|----|-----------|
|----|----|----|----|-----------|

남자 중년부

| | | | | |
|---|-----|---|---|--------|
| 1 | 김동오 | - | - | 54.725 |
|---|-----|---|---|--------|

여자 중년부

| | | | | |
|---|-----|---|---|--------|
| 1 | 박송이 | - | - | 57.259 |
|---|-----|---|---|--------|

남자 청년부

| | | | | |
|---|-----|---|---|--------|
| 1 | 황현빈 | - | - | 50.593 |
| 2 | 이민우 | - | - | 54.296 |
| 3 | 조복 | - | - | 57.123 |

여자 청년부

| | | | | |
|---|-----|----------|---|--------|
| 1 | 강영서 | 부산광역시체육회 | - | 44.319 |
|---|-----|----------|---|--------|

남자 대학부

| | | | | |
|---|-----|---------|---|--------|
| 1 | 김동현 | 한국체육대학교 | 1 | 45.422 |
|---|-----|---------|---|--------|

남자 중학부

| | | | | |
|---|-----|--------|---|--------|
| 1 | 김기영 | 해운대중학교 | 2 | 46.735 |
| 2 | 천지우 | 신도중학교 | 2 | 49.141 |
| 3 | 권윤 | 하남중학교 | 3 | 50.772 |

여자 중학부

| | | | | |
|---|-----|-------|---|--------|
| 1 | 조연서 | 명지중학교 | 1 | 52.615 |
|---|-----|-------|---|--------|

| 순위 | 이름 | 소속 | 학년 | 기록(TOTAL) |
|----|----|----|----|-----------|
|----|----|----|----|-----------|

남자 초등 1부(1~2학년)

| | | | | |
|---|-----|--------|---|-----------|
| 1 | 김민준 | 강동초등학교 | 2 | 01:00.283 |
| 2 | 이지호 | 광안초등학교 | 1 | 01:04.663 |
| 3 | 서이준 | 해원초등학교 | 1 | 01:21.795 |

여자 초등 1부(1~2학년)

| | | | | |
|---|-----|--------|---|-----------|
| 1 | 조현서 | 동래초등학교 | 2 | 55.507 |
| 2 | 김하령 | 금빛초등학교 | 1 | 01:09.029 |
| 3 | 박지수 | 강동초등학교 | 2 | 01:16.793 |

남자 초등 2부(3~4학년)

| | | | | |
|---|-----|--------|---|--------|
| 1 | 김지완 | 안진초등학교 | 4 | 50.492 |
| 2 | 조현준 | 동래초등학교 | 4 | 52.216 |
| 3 | 문재준 | 장서초등학교 | 4 | 53.665 |

여자 초등 2부(3~4학년)

| | | | | |
|---|-----|--------|---|--------|
| 1 | 손아림 | 해강초등학교 | 3 | 57.453 |
| 2 | 구다연 | 해원초등학교 | 4 | 58.198 |
| 3 | 이다인 | 동성초등학교 | 3 | 58.211 |

남자 초등 3부(5~6학년)

| | | | | |
|---|-----|--------|---|---------|
| 1 | 김준우 | 동래초등학교 | 5 | 49.223 |
| 2 | 박우현 | 광남초등학교 | 6 | 49.548 |
| 3 | 한준서 | 동래초등학교 | 5 | 51.4198 |

여자 초등 3부(5~6학년)

| | | | | |
|---|-----|--------|---|--------|
| 1 | 최서영 | 동성초등학교 | 6 | 57.589 |
| 2 | 윤서하 | 동성초등학교 | 6 | 57.785 |
| 3 | 안소은 | 강동초등학교 | 5 | 58.709 |

한국 체육 발전과 국민 통합의 상징

전국체육대회

2025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체육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체육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행사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부산체육』은 이번 호부터 ‘전국체전 trivia’ 코너를 통해

전국체육대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와 기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1940년대까지의 역사를 상세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소개할 전국체육대회의 전체 역사를 발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다.



朝鮮體育會創立趣旨書

모라半空에 솟은 우륵과大地에 일어선 조은山嶽!
그 얼마나雄壯하며毅毅한요? 天地에 드르는生命은果
然總動하는도다모라! 空中에 나는 빠른새와地上에 기는
날렵짐승들! 그 얼마나強健하며敏捷한고天地에 드르는
生命은果然雄壯하도다.
噫라! 天地의萬物은모직生命의한덩어리로다.
사람은元來이躍動의生命과充實의生命과雄壯한生命
을受하여生한지다그身體은다시소나과와같이雄壯하에
그精神은다시日月과같이明瞭한것이아닐이피그라하
곳하여그顏色은茶色같이아득光彩가無하며그身體은細
柳의마른가지같이아득氣力이無하고精神이모직昏迷
한은何故요? 이는安穩한生活이얼어지며條理없는廢身
에빠져서天理를거슬러生命의暢達을圖謀치못한이니
個個人의不肖을作할정이나國家社會의衰頹를招來하
여現在에止할정이나은將來에遺傳하여子孫에及
할지나正히滅亡의途를自取할이라고어찌吾人의寒心할
바아나리오.
此을回復하여雄壯한氣風을作興하여剛健한身體을養
育하여져社會의發展을圖謀하며個人의幸福을企望할진
에그途은모직天賦의生命을身體에暢達케할에在하니그運
動을奨勵하는外에他道가無하도다.
우리朝鮮社會에個個의運動團體가無함이아니라고그리
나이를後援하며奨勵하며朝鮮人民의生命을圖然暢達
하는社會的統一的機關의欲如할은實로吾人의遠慮이고
조선民族의羞恥로다吾人은茲에感嘆바有하여朝鮮體育
會를發起하노니朝鮮社會의同志諸君子는그來하여贊賞
신키
一九二〇年七月十三日

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자료 제공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의 기원과 초기

전국체육대회의 시발점은 1920년 조선체육회의 창립이다. 당시 일제 강점하에서 한국 체육은 일본의 체육 활동에 종속되었고,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한 체육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체육회 설립에 나섰다. 조선체육회는 조선인들이 중심이 된 체육 활동을 통해 국민의 체력 증진과 민족 단결을 도모하고자 했다.

조선체육회에 앞서 1919년 조선체육협회가 만들어졌으나 이는 일본체육협회의 조선지부로서 일본인들이 주도하여 만든 단체였다. 따라서 양식(良識) 있는 조선의 체육인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즉, 일제 총검의 탄압 아래 꺾인 좌절감, 울분에다 고조된 민족 감정이 어우러지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이자 민족주의 운동의 하나로 표출된 것이 바로 ‘조선체육회’의 창립이었다.

조선체육회 창립은 3·1운동 이후의 문화운동과도 연계된다. 1919년의 독립운동은 일본의 문화정책을 이끌어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족지의 발간을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체육 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라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전국체육대회 탄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국체육대회의 창설과 일제 강점기

1920년 조선체육회의 첫 사업으로 11월 4일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제1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다. 조선체육회 출범 직후인 7월에 처음으로 전조선축구대회를 열기로 하였으나 축구 대신 야구로 종목을 변경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체육회 창립 발기인들 중 도쿄 유학생 출신으로 이 중국, 이원용, 윤기현, 변봉헌, 권승무 등 야구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동아일보 변봉헌 기자는 와세다 대학 영문과 재학 시절 야구선수로 활약한 바 있었고, 전조선야구대회 개최에는 동아일보의 후원이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이후 축구, 정구, 육상 등 단일 종목의 전국 대회들이 매년 개최되었으며, 이는 1934년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 기념 종합경기대회로 발전하며 전국체육대회의 원형이 되었다.

이 시기의 전국체육대회는 일본의 체육 대회와 경쟁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특히 1930년대 들어 축구, 육상 등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며 항일운동의 상징적 역할을 했다.

1934년에는 축구, 야구, 농구, 육상, 정구 등 5개 종목의 경기를 통합한 조선체육회 창립 제15주년 기념 전조선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5회 전국체육대회로 기산되는 이 대회는 우리 민족 초유의 종합경기대회로서 사실상 오늘날의 전국체육대회의 시발이며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체육 부흥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지나사변)을 일으키며 식민지 통제를 강화했다. 1938년 국가총동원령과 조선교육령을 통해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민족적 활동을 억압했다. 조선체육회는 일제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활동이 제약되었고, 독립적인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다. 결국 1938년 7월 4일, 조선체육회는 최후의 총회를 열어 일본의 조선체육협회와 합작을 결의하며 해체되었다. 이는 일제의 탄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해체였다.

광복 이후와 전국체육대회의 부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같은 해 10월 27일 개최된 ‘자유해방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제26회 전국체육대회)’는 8년간 중단되었던 우리 민족 체육 활동의 부활을 알렸다.

이 대회는 민족적 자긍심을 재건하는 중요한 행사였으며, 특히 북한 선수들도 참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북한 선수가 함께 경기를 치른 전국체전은 이것이 최초이자 마지막이 되었다.

조선종합경기대회는 1946년 ‘조선올림픽대회’로, 1948년 대한체육회에 의해 체계적인 체육 운영이 시작되면서 ‘전국체육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이 대회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규모 체육 축제로 성장했다.

전국체육대회의 발전 단계

1. 부활기(1945~1956)

광복 이후 혼란 속에서 체육 활동이 다시 조직화되었고, 전국체육대회는 한국 체육의 부활과 함께 국민적 통합을 이끄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2. 도약기(1957~1971)

서울에서만 열리던 대회가 부산 등 지방으로 확대되며 전국 단위 대회로 자리 잡았고, 대회기간을 체육주간으로 제정하였다.

3. 개혁기(1972~1981)

전국체육대회의 과도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분리되었고, 국제 대회를 준비하며 체계적인 스포츠 관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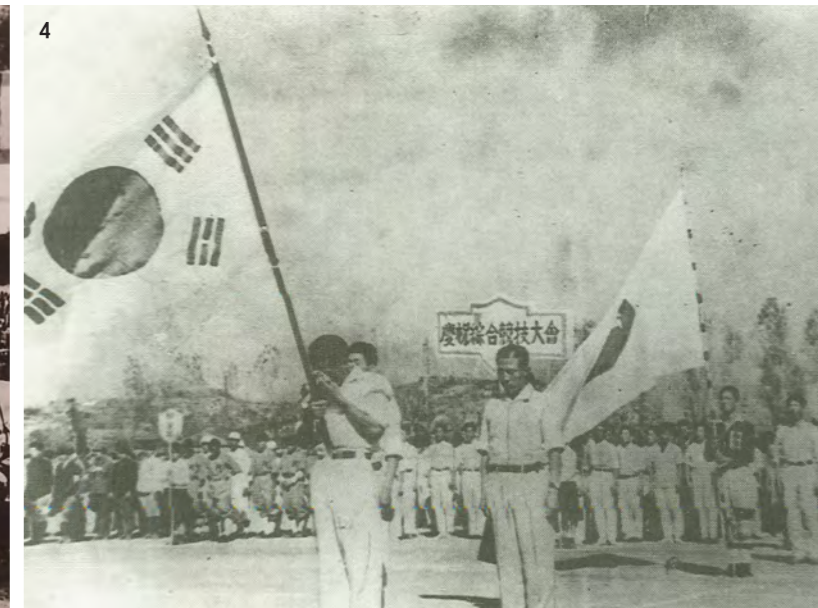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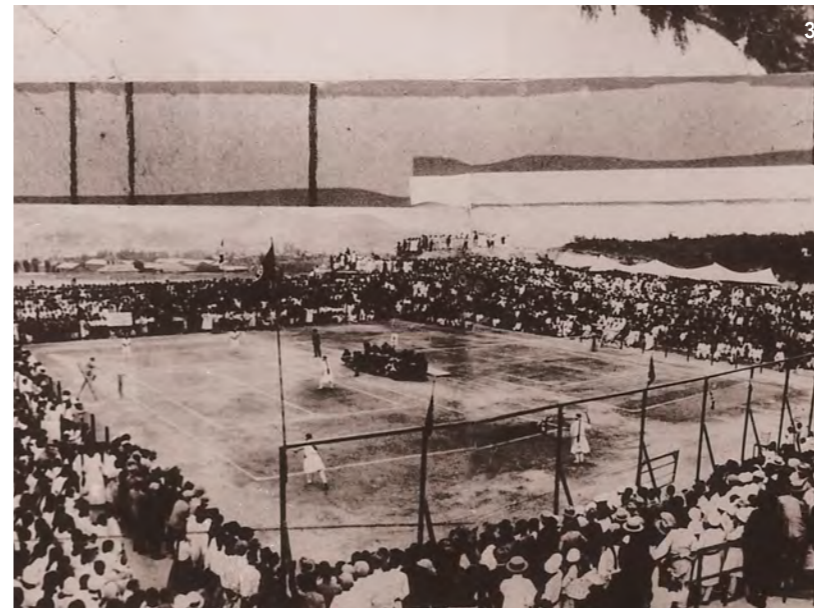
4. 발전기(1982~1987)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며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건설하고 대회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5. 승화기(1988~현재)

서울올림픽 이후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축제로도 자리 잡았다.

자료 출처 김상구, 2007. 8., 『전국체육대회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의』,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1. 제1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 우승자들 2.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에서 시구를 하는 월남 이상재 선생
3. 제6회 전조선정구대회 경기 모습 4. 1945년 자유해방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 개회식에서 손기정 선수가 기수로 참석해 태극기를 들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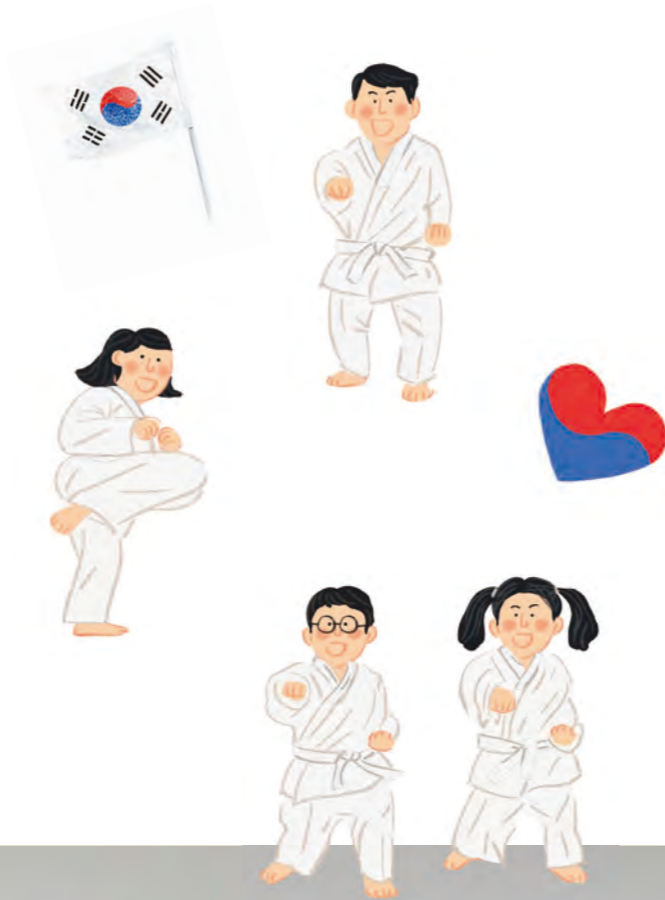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전국체육대회는 한국 체육 발전과 국민 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하며, 그 기원은 일제 강점기와 독립 이후 체육을 통해 민족의 자존감을 고취하려는 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한국 체육사의 중심이자 민족 단합의 장이었다. 엘리트 스포츠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며, 지역 스포츠와 문화의 균형적 성장을 촉진했으며, 국제 대회 개최 노하우를 축적하며 한국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압도하는
부산진구 택견 대표

부산진문화원 택견반

이른 오후, 부산진문화원 교육실에서는
우리 전통무술 택견 수련에 전념한 회원들을 만날 수 있다.
인생 황혼기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는
택견반 회원들을 만나 택견의 매력에 빠져 보자.



Q. '부산진문화원 택견반'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택견반은 2010년 창단해 15년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부산진구 대표 택견 동호회입니다. 창단 당시 부산진문화원 사무국장께서는 어르신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분이셨는데, 여러 종목 중 부드럽고 유연한 택견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부산진문화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택견반이 창단됐고 창단 이후에도 택견반 활성화를 위해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써주신 기억이 납니다. 당시 지역사회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택견반을 소개해주신 덕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지도자님은 어떤 계기로 지도를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은 택견반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선박 설계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2000년 즈음, '이방인'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 안성기 님이 영화 촬영을 위해 택견을 수련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택견 동작을 보는 순간, 택견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고 올해로 2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진문화원 택견반이 창단할 때 지도자로 발탁된 덕에 지금도 회원들과 즐겁게 수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 택견반 회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회원들은 60대~80대 어르신분들입니다. 이순덕 반장님의 경우는 창단부터 함께해 왔는데 어느덧 80대가 되셨습니다. 가장 어린 분이 60대 초반인데, 가끔 다른 회원분들 심부름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면 웃음이 나면서도 괜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웃음)

연령대가 높지만 젊은 수련자들 못지않게 택견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택견에 대한 열정만큼은 은퇴 전 사회에서 활약하시던 때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Q. 한국 전통무술 택견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택견은 태권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전통무술입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유연한 동작이 특징입니다. 고유의 리듬을 갖추고 있어 언뜻 춤사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가격하는 등 공격 기술이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하는 무술입니다. 한 가지 매력을 꼽자면 견주기(대련)라고 생각합니다. 타격을 주로 하는 무술임에도 근거리에서 동작을 구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호흡과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 견주는 중에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술입니다.



Q. 우리 동호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택견 실력도 우수하지만, 화목한 분위기가 가장 큰 자랑입니다. 오랫동안 택견반을 지탱해오신 반장님들부터 신규회원들까지 화목한 분위기 속에 수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회원들이 회기 중에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십니다. 다른 지역 택견팀의 경우 단체전에 참가할 선수가 없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우리 부산진문화원 택견반은 중도 탈퇴자가 없으니 단체전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회원들과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추억이 생깁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가 며칠에 걸쳐 진행될 때는 다 수학여행 가는 느낌으로 짐을 꾸립니다. 성적이 어떨든 대회 기간 내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수련해서 대회에 꾸준히 참가할 생각입니다.



부산진문화원 택견반 권다교 지도자

안녕하십니까. 부산진문화원 택견반 지도자 권다교입니다.
65세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부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더 빨리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부산의 현 상황을 자조하는 말로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다양한 운동이 있지만 노년에 건강을 관리하며 정신 수양을 병행할 수 있는 운동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생활이 힘들 때도 있지만 회원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이 더 큼니다. 24년 전 택견을 처음 시작하게끔 동기를 부여해준 안성기 배우에게 새삼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문화원 택견반 회원들이 건강하게 택견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진문화원 택견반 이순덕 반장

2010년, 택견반이 창단할 때부터 시작했으니 햇수로 딱 15년째 수련하고 있습니다. 같은 운동을 15년 동안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했기에 15년 넘는 시간 동안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택견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꾸준히 한다면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꾸준함의 대상이 되어준 택견에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부산진문화원 택견반 권외룡 반장

택견 동작은 우아하고 부드럽습니다. 다소 어려운 동작도 있지만 지도자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아서 견주기 하다가 쓰러지는 일도 있지만 이 또한 택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길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내서 택견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산진문화원 택견반 손대권 회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운동 경력이 짧지만 택견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확실한 것은 물론,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할 정도로 유익한 운동입니다. 택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수련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겨울 스포츠, 안전하게 즐기자!

한랭질환 응급처치 가이드

칼바람을 가르며 스키를 타고,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누비는 짜릿한 겨울 스포츠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혹한의 추위와 부주의는 동창, 동상, 저체온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 스포츠 현장에서 안전하게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미리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랭질환 응급처치 가이드 ①

동창이란

동창이란 비교적 가벼운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부분적인 염증반응이다. 실외 스포츠 행사 현장에서 손, 발, 귀처럼 외부에 노출된 부위에 주로 발생하며, 피부색이 창백하다가 점차 붉어지고 가려움과 저림 증상을 동반한다. 심한 경우 물집과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동창을 방치하면 피부의 하부조직까지 어는 동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따뜻한 물로 회복하기

동창은 적절한 응급처치만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 동창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발생한 부위를 20~30분간 따뜻한 물에 담가 피부를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다면 관련 약제를 사용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단, 동창 부위는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뜨거운 물로 처치하면 오히려 2차 손상(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응급처치 시 물의 온도는 38°C~42°C로, 팔꿈치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적당하다. 만약 따뜻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창 부위를 겨드랑이로 감싸는 등 체온을 이용해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랭질환 응급처치 가이드 ②

동상이란

동상이란 영하의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 조직이 얼고 세포가 파괴되는 증상을 말한다. 동상은 피부의 손상 정도에 따라 표재성 손상인 1도, 2도와 심부 손상인 3도, 4도로 나뉜다. 스포츠 현장에서 동창만큼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동상이 진행되면 피부 괴사로 이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응급 처치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악화되기 전에 정확한 대처가 중요

동상 환자는 즉시 따뜻한 환경으로 옮겨 젖은 옷은 벗기고, 몸을 따뜻한 담요로 감싸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동상 부위는 37°C~39°C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세포 사이의 결빙을 풀어주어야 하며, 물이 식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계속 보충해야 한다. 귀나 얼굴의 동상 부위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동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독된 마른 거즈를 손·발가락 사이에 끼워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동창과 마찬가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난로나 불에 동상 부위를 직접 노출하는 것도 금물이다. 또한, 동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는 동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들것을 이용해야 하며, 특히 다리에 심한 동상이 발생한 경우 회복된 후에도 일정 기간 자가 보행을 자제해야 한다.



한랭질환 응급처치 가이드 ③

저체온증이란

저체온증은 외부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신체의 중심체온이 35°C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추운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기저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저체온증은 체온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뉘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오한, 비틀거림, 의사결정 곤란, 피로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하면 더 이상의 체온 손실을 막고, 중심체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겨 젖은 옷은 벗기고,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환자를 감싸주어야 한다. 거드랑이와 복부에 핫팩이나 따뜻한 물병을 대어 몸의 중심부를 데우거나,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사람이 직접 끼안는 것도 효과적이다. 환자를 옮기거나 처치 시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며,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단, 몸을 떠는 행위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억지로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체온이 32°C 이하로 떨어진 환자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핫팩 등을 사용한 응급처치는 피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나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자.



추위는 누구에게나 위협이 될 수 있다. 겨울철 야외 스포츠를 즐길 때는 따뜻한 옷과 방한용품으로 몸을 감싸고, 따뜻한 장소에서 중간중간 쉬어주어야 한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즐겁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하자.

동계올림픽의 시작과 함께해온 유서 깊은 겨울 스포츠

바이애슬론

겨울 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포츠 스키. 하얀 눈 위를 미끄러지다 보면 매서운 추위는 어느덧 잊게 된다.

스키에서 파생된 다양한 종목들은 동계올림픽 인기 종목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세 종목. 바이애슬론,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대해 알아보자.

바이애슬론(스키사격)은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을 결합한 겨울 스포츠로 유럽과 북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동계 생활 스포츠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유서 깊은 종목이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대중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특이한 룰 덕분에 동계올림픽 기간에 특히 많은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다.

북유럽 지역의 설산 부대 군인들이 스키를 타며 이동 중에 적을 발견하는 상황을 상정해 훈련하던 것이 점차 스포츠화 되어 개발된 것으로, 초창기에는 군사 정찰(Military Patrol)이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이 참가하는 경기였다. 이후 근대5종과 연계하여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 명칭을 부여받았다.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경기대회(샤모니대회)에서 '군사 정찰'이라는 종목으로 시합이 치러졌고 1960년 스쿼벨리 대회 때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재도입, 현재까지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격을 병행하는 종목인 만큼, 스키 실력 못지않게 사격 정

확도가 중요한데, 사격에 실패하는 경우 벌주*(150m) 부과, 기록 가산(1분) 등의 페널티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전략을 분석하는 재미도 따른다.

다음 소개할 종목은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다. 각각 육상 단거리 경주와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알파인 스키는 세부 종목별로 표고차(해발고도), 코스의 길이, 통과해야 할 기문(깃발) 수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키 종목 중 코스 경사가 가장 가파르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스키로 구사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크로스컨트리는 알파인 스키와 달리 장거리를 주파하는 종목이다. 인위적인 코스가 아닌 산악 지형을 활용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스를 달린다. 언덕과 평지, 내리막으로 구성된 구간이 10km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스키 종목의 마라톤이라고도 불린다. 클래식 주법과 프리스타일 주법을 구사하며 체력과 기술, 전략을 동시에 겨룬다.

*벌주: 바이애슬론 경기에서 선수가 사격에 실패한 경우, 이를 전체 기록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빗나간 탄환 한 발당 150m의 스키 코스를 추가로 주행한다.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BIATHLON)은 '뿔'이라는 뜻의 '바이(BI)'와 '운동경기'라는 뜻의 '애슬론(ATHLON)'이 합쳐진 단어로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이 결합된 동계스포츠 종목이다.

눈이 많이 오는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설원에서 사냥을 하거나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스키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개인경기

개인경기는 바이애슬론 종목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종목이다. 남성 기준 20km 코스를 완주한다. 선수들은 30초 내지 1분 간격으로 출발해 4km 주행 후 엎드려 사격, 8km 주행 후 서서 사격, 16km 주행 후 서서 사격, 20km 주행 후 서서 사격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사격은 매 회 50m 밖에 있는 표적을 5발씩 쏘아야 하며, 명중하지 못하는 경우 한 발당 1분이 완주 기록에 더해진다.

스프린트

스프린트 경기의 기본 룰은 개인경기와 같지만 개인경기에 비해 코스 길이가 절반이고 표적을 명중하지 못하는 경우, 탄 한 발당 150m의 벌주가 주어진다.

계주

팀은 4명으로 구성되며 각 주자는 남자 7.5km, 여자 6km를 주행한다. 남자는 2.5km, 여자는 2km를 주행 후 엎드려 사격을 시행하고 이후, 남자는 5km, 여자는 4km 주행 후 서서 사격을 시행한다. 50m 밖의 표적 5개를 명중해야 하며 한 구간당 탄환은 탄창에 5발, 예비탄환 3발이 주어진다. 탄창의 탄을 소비한 후에는 수동으로 탄을 장전해야 하며, 예비탄환을 모두 소모한 이후에도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표적당 150m의 벌주가 주어진다.

활강 Down Hill

스피드이벤트로, 한 차례의 경기로 순위가 결정된다. 기문의 개수가 적고 표고차가 가장 높다.(남자: 800~1,100m / 여자: 450~800m) 슬로프의 너비는 30m가량이고 완주기록은 남자부 1분 40초~2분대, 여자부는 1분 20초~40초대에 형성돼 있다.

초대회전 Super Giant Slalom

활강과 마찬가지로 스피드 이벤트다. 활강경기보다 거리가 짧고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며 선수들은 35~40개의 기문을 통과해야 한다. 역시 1차례 경기로 순위가 결정된다. 표고차는 남자부 400~600m, 여자부 400~650m이고 기록은 남자부가 1분 20초~30초, 여자부가 1분 10초~20초대이다.

대회전 Giant Slalom

대회전경기는 기술경기의 하나로 표고차는 남자부 300~450m, 여자부 300~400m이다. 남자부는 50~55개, 여자부는 45~50개의 기문을 통과하며 완주에는 1분~1분 10초 정도가 소요된다. 1차전 기록으로 2차전 진출 선수를 가리고 2차전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회전 Slalom

알파인 경기 중 슬로프 길이가 가장 짧은 종목으로 표고차는 남자부 180~220m, 여자부 140~220m이다. 선수들은 45~55초 사이에 슬로프를 완주한다.

남자부는 60~70개의 기문을, 여자부는 55~65개의 기문을 통과하고 1차전 기록을 통해 상위 30명이 2차전으로 진출한다.

복합 Super Combined

복합경기는 일반적으로 활강경기와 회전경기의 참가기록 합산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Alpine Skiing

알파인 스키

알파인 스키는 한 명씩 게이트를 통과하며 슬로프를 내려가는 경기로, 활강(Downhill), 초대회전(Super Giant Slalom), 대회전(Giant Slalom), 회전(Slalom), 복합(Super Combined), 혼성 단체전(Nations Team Event) 등 6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림픽 스키 종목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종목이다.



주법 1 클래식

스키어가 정해진 트랙 위에서 자연스러운 발구르기와 팔의 힘을 사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더블 폴(Double Pole)과 글라이드(glide) 동작의 조화가 핵심이다. 정해진 트랙에서 주행하며,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법 2 프리스타일

스케이팅 기술을 활용하여 스키어가 트랙 바깥에서 자유롭게 나아가는 현대적인 주법이다. 클래식 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동작이 역동적이어서 체력 소모가 크다. 선수의 체력과 민첩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Cross-country skiing

크로스컨트리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클래식과 프리스타일이라는 두 가지 주법으로 나뉘며, 세부 종목으로는 개인 출발, 스프린트, 팀스프린트, 단체 출발, 계주, 스키애슬론 등 6개 종목이 있다.

개인 출발

15~30초 간격으로 개인 출발하는 경기로 기록이 가장 빠른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이다.

여자는 10km, 남자는 15km를 클래식이나 프리스타일 주법으로 주행한다.

단체 출발

모든 선수들이 동시 출발하는 경기로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이다. 여자는 30km, 남자는 50km를 클래식 또는 프리스타일 주법으로 주행한다.

스키애슬론

모든 선수들이 동시 출발하는 경기로 여자는 15km, 남자는 30km 거리를 주행하며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이다. 전반은 클래식 주법으로, 후반은 프리스타일 주법으로 진행된다.

계주

한 팀당 네 명으로 구성되어 첫 번째, 두 번째 주자 2명은 클래식 주법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주자 2명은 프리스타일 주법으로 주행하여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 팀 경기이다.

여자팀은 총 20km 거리를 한 선수가 5km씩 주행하며, 남자팀은 총 40km 거리를 한 선수가 10km씩 주행한다.

개인 스프린트

단거리 경기로 짧은 코스(0.8km~1.8km)를 클래식 또는 프리스타일 주법으로 빠르게 주행하는 경기이다.

예선전은 15초 간격으로 개인 출발하고 가장 빠른 순서로 순위를 가려 준준결승 또는 준결승 진출자를 선발한다.

준준결승 또는 준결승, 결승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4~6명이 1조가 되어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팀 스프린트

2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3~6구간을 교대로 클래식 또는 프리 주법으로 주행하는 단거리(0.8km~1.8km) 계주 경기이다.

모든 팀이 동시에 출발하는 경기로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노화 실천법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저자 정희원 / 출판사 한빛라이프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나이 드는가?”

건강과 나이듦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다.

덜 노쇠하고 더 활력있는 미래를 맞이하는 것.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하고 있는지 고민한다.

때로는 여기저기서 들은 좋다는 것은 죄다 실천해 보지만 되려 몸 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느리게, 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잘 맞는 중용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0~30대의 당뇨병 증가율은 무려 73%, 고혈압 증가율은 45%에 달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의 저자 정희원 교수는 오늘날 젊은 성인들은 부모 세대보다 일찍 만성질환을 겪고 있으며, 수명은 늘어났지만 더 오랜 기간 병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해 왔다.

‘노화’라고 하면 대개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느린 걸음걸이 같은 모습을 떠올리지만, 노화의 속도와 정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70세에도 활기찬 삶을 살지,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낼지는 지금부터의 내재역량 관리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실제 미국의 성인 7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 식사, 수면, 사회관계, 스트레스 등 생활 습관에 따라 기대수명이 최대 24년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 교수는 이 책에서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실천 전략을 세 가지 주제로 제시한다.

첫째는 ‘효율적으로 먹기’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내 몸에 맞는 식사 목표 설정법, 가속노화를 막는 절식 실천법,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MIND 식사법을 소개한다.

둘째는 ‘제대로 움직이기’다. 근력이 약해지면 일상적인 동작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만성질환 가능성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도 저하된다. 몸의

균형을 잡고 유연성을 키

우는 방법, 바르게 앉고 서는

법,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코어 운동과

둔근 운동법도 담았다.

마지막은 ‘뇌 건강 지키기’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호흡법, 스트레

스와 수면 관리법, 치매 예방

을 위한 인지 예비능(뇌

의 근력)을 높이는 법

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뇌 건강 관리 법을 알

려준다.

이 모든 실천법에 앞서, 저자는 우리가 나이듦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 보기를 제안한다.

많은 사람이 나이듦을 피해야 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 혹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전

문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으며

나이듦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첫걸음을 내

디더 보자.





부산광역시체육회 『3대 전략 6대 혁신과제』 발표 공정·공개·공감의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민선체육 출범 5년, 다양한 변화와 강도 높은 쇄신을 위해 『부산체육발전 혁신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회원단체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 체육계 각종 비위행위 발생 등으로 컨트롤타워 부재론과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부산체육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원칙과 정의,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선진형 체육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 △공개 △공감 3대 전략을 토대로 세부과제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조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내용은 사무처장 직속의 공정기획감사실을 신설하여 불공정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및 중장기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구상 등 기획력을 보강한 부서 신설과 부산시 생활체육 전담부서 신설 기조에 맞춰 생활체육 본부 및 부서 확대 등이다. 또한 성숙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조직 내 구성원 갈등 조정 시 징계 및 파견조치 등 강력한 인사조치 시행으로 부정적인 직장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열악한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된다.

행·재정적으로 열악한 종목단체를 우선으로 통합사무실 및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행정력을 강화하고, 평가제 도입을 통해 회원종목단체의 자정능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체육인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지속된다.

시민과 체육인의 권익 보호 등 적극 행정 대응을 통해 스포츠 비리를 축소하고 비윤리 행위, 부조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역할도 강화된다.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기존 위원회의 통폐합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고유 기능을 위한 어젠다를 부여하여 위원회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체육의 재정자립도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수익 창출 구조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비용 관리로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공식후원사 유치 및 수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새로운 지방체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변화와 강도 높은 쇄신으로 부산체육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운영 프로그램

헬스장

생활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갖춘 3명의 전문 트레이너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 6일간(월~금 06:00~22:00, 토 06:00~18:00) 이용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등록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은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스미머신, 트레드밀 등 유산소 운동기구, 부위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30여 개의 웨이트머신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 사물함(이용료 별도)이 준비되어 있다.

배드민턴교실

배드민턴은 운동 효과는 높으면서 재미있는 운동으로 꼽힌다. 배드민턴교실에서는 2명의 선수 출신 전문 강사에게 기술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기초 체력 훈련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개 교시(07:30~09:00, 09:00~

10:30, 18:30~20:00, 20:00~21:30)에 각 40명을 정원으로 하여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 프로그램이 2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금요일은 자율 운동으로 운영되며, 일주일에 2회 개인별 레슨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농구교실

농구는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운동이지만 좁은 코트 안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므로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데, 어린이 농구교실에서는 체력과 더불어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판단력, 예측력 그리고 소속감,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3개 교시(08:30~09:50, 10:00~11:20, 11:30~12:50)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30명 정원으로 진행되며 정원이 미달된 교시의 경우 참가자를 수시 모집하며, 체육실기교사 교원자격증, 대한민국 농구지도자 및 대한민국 농구심판 자격증 등을 갖춘 선수 출신 강사가 지도한다.



헬스장



배드민턴교실



어린이 농구교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5년 중구체육회 현장지도 계획 수립

중구체육회는 중구노인복지관 외 42개소에 방문하여 초등학교부터 어르신까지 중구민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집에서도 스포츠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근력 운동 영상을 매달 유튜브(중구체육회 스포츠톡)에 업로드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구체육회



2025년 부산서구배드민턴협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개최

1월 18일(토) 부산관광호텔에서 부산서구배드민턴협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회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활동을 돌아보고 2025년 계획과 목표가 논의되었으며, 이·취임식에서는 김석현 전 회장의 퇴임과 김기호 신임 회장의 취임이 이루어졌다. 김기호 신임 회장은 “서구 배드민턴의 발전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행사 후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협회의 미래를 기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체육회



부산동구야외배드민턴협회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개최

부산동구야외배드민턴협회는 1월 24일(금), 제7·8대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홍 동구청장, 9개 클럽 회장들과 운영이사 등 관계인사 30여 명이 참여해 2024년도 사업성과 및 재무, 감사 보고와 함께 협회의 정관 개정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예만기 제8대 회장이 취임했으며, 이종해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회를 위해 헌신해 준 임원진과 각 클럽 임원진, 회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예만기 신임 회장은 “9개 클럽 간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신규 회원 모집과 젊은 세대 동호인 유치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20년간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이어온 지역 대표 동호인으로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구 배드민턴 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도구체육회



영도구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용품 전달식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꿈나무 체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도구 관내 3개 학교 체육팀(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사격부, 영도제일중학교 럭비부, 영선중학교 펜싱부)에 운동 용품을 전달하였다.

전달식은 각 학교의 교장실 및 운동부실에서 부산영도구체육회장, 사무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처럼 영도구체육회는 지역 내 체육 발전을 위해 단순한 격려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진구체육회



제14회 부산진구청장배 배구대회 개최

지난 12월 21일(토)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4회 부산진구청장배 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만큼 경기는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동의과학대학교까지 총 세 군데에서 진행되었다.

대회 결과로는 남자부 우승은 동초회, 준우승은 부산진구가 차지하였다. 연말의 여운이 가득한 한 해의 끝자락에서 부산진구 배구 동호인들의 열정과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모두 큰 부상 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부산진구체육회는 배구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배구교실을 여는 등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에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동래구체육회



동래구체육회 임직원 한라산 등반

동래구체육회는 임직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체력 증진 및 팀워크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의 대표적인 명산 한라산을 등반하였다. 이번 등반은 직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높이고 조직 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체력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등 뜻깊은 경험을 쌓았다. 동래구체육회 정길호 회장은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과 기쁨을 얻고,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여 꾸준히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제2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장 초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 성료

1월 15일(수)부터 1월 19일(일)까지 5일간 장산인조잔디구장, 해동초등학교에서 제 2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장 초청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가 개최되었다. 해운대구 유소년 축구팀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등 각 지역의 유망한 유소년 축구팀을 포함한 총 16개 팀이 실력을 겨루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양산유나이티드 풋볼스포츠클럽이 우승의 영광을 누렸고, 부산해운대FC U-12가 준우승, 대구반야월초, 다산주니어FC가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좋은 경기력과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각 팀에게 아낌없는 찬사가 쏟아졌다.

사하구체육회



2024년 청소년 스키캠프 프로그램 진행

1월 10일(금), 양산 에덴밸리에서 2024년 청소년 스키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사하구 관내 거주 청소년 20명(예비 중학교 1학년 이상~예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착순 접수)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스키 장비 명칭 설명 등 안전하게 스키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스키캠프를 통해 겨울 스포츠를 접해 보고 스키 기술을 배우며 체력 및 균형감을 발달시킨 것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등 활기찬 야외 활동을 즐겼다.

금정구체육회



협의회 회장 선거 진행 및 각 협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1월, 금정구체육회는 협의회 회장 선거를 마무리하였다. 15개 종목 중 8개 종목에서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7개 종목에서는 기존 회장이 연임하게 되었다. 각 협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준회원 및 인정단체 회장은 변동 없이 기존 체제를 이어가게 되었다.

강서구체육회



2025년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정기이사회 및 신년회

강서구체육회는 1월 23일(목)에 체육회 이사 42명 중 31명이 참석하여 2025년 정기이사회를 진행, 의결안건 7건을 의결 승인하였다. 주요안건은 2024년 결산 및 2025년 추진사업이었으며, 예산(안) 외 5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어진 신년 인사회에는 강서구체육회 김재업 회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체육회 및 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강서체육과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 등을 제시하였다.

수영구체육회



수영구체육회 시무식 및 새해 다짐의 시간 진행

수영구체육회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3일(금)에 2025년 시무식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해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체육회 황대성 회장은 직원 모두가 수영구 체육의 힘찬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구민이 안심하고 체육을 즐기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동호인들과 서로 소통하며 한 단계 성장하고, 구민의 의견은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수영구체육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사상구체육회



2024년 사상구체육회 어린이체능 및 청소년 체력교실 스키강습 성료

1월 7일(화),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어린이체능 및 청소년 체력교실 스키강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상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해 스키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대한체육회와 사상구체육회 주관,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사상구청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스키 강사들의 지도 아래 안전사고 없이 강습을 마쳤다. 사상구체육회는 향후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과 활기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체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기장군체육회



2025 기장군체육회 겨울 가족 스키교실 개최

기장군체육회는 1월 16일(목)~17일(금) 1박 2일 동안 무주스키장 일원에서 기장구민을 대상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키교실을 개최하였다. 2025 기장군체육회 겨울 가족 스키교실에서는 개인별 수준에 따라 초급자와 중급자로 구분한 스키강습과 함께 강습을 토대로 각자 리프트를 타고 자유스키를 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온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설원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매년 겨울에 개최하는 스키교실은 체육회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부산에서 보기 힘든 눈을 구경하고 스키라는 스포츠를 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민체육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성료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국민체육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학생 76명의 참여 속에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배드민턴, 농구, 헬스 PT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이번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추운 날씨 속에도 부산국민체육센터를 찾아 건강한 방학을 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이를 따라온 학부모 또한 부지런한 아이의 모습에 흐뭇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체력과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



2025학년도 초등 대상 생존수영 참가학교 모집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초등학생들의 수상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생존수영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체험 중심의 생존수영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물 적응 훈련, 심폐소생술(CPR), 구명정 활용법 등 실질적인 생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은 수상 인명 구조 자격을 보유한 전문 지도자가 지도할 예정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방학 특강 프로그램 종강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1월 2일(목)부터 1월 24일(금)까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에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과 책임감을 기르면서 즐겁게 방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그룹으로 진행된 방학 특강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수업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며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다.

INFORMATION

영도국민체육센터



2025 1월 실버 건강체조 교실 개강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2025년 신설프로그램인 <실버 건강체조 교실>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나는 음악과 율동에 맞춰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체 활동을 증진시켜 주며 생활에 리듬과 활기를 되찾아 주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매주 12시, 13시에 주 2회 또는 주 3회 진행되며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실내빙상장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사전경기 진행

1월 11일(토)부터 14일(화)까지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사전경기가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실내빙상장에서 프리랜서 강사와 함께 훈련하는 18명의 선수가 쇼트트랙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3,000m 여자 대학부에서 박서진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실내빙상장은 빙상종목 저변 확대 및 전문-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강습 및 대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테니스장 고장 LED 조명 수리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1월 27일(월)에 고장 LED 조명 수리를 실시하였다. 테니스장은 2020년 전체 조명 LED 교체 후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노후화, 누수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LED 조명을 수리하였다. 또한 이용 회원에게 쾌적한 환경과 최상의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내 전체 청소, 코트 신규 규사 도포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신평장림체육관



체육관 시설 보수

신평장림체육관은 1월 2일(목)~4일(토) 임시 휴관을 통해 체육관 내 시설 보수를 실시하였다. 보일러 가동 시 배관 진동(노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볼밸트를 설치하고 수영장 내부 녹 제거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문을 수동으로 교체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바둑협회

1

제6회 한중일 3개 도시 청소년 바둑교류대회 개최

1월 18일(토) 제6회 한중일 3개 도시 청소년 바둑교류대회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한중일 청소년 바둑 선수들이 모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의미 깊은 대회로, 각국의 바둑 실력과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광역시 2개 팀, 상하이시 1개 팀, 나가사키현 1개 팀 총 4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한 팀당 5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5대5 단체전 4개 팀 풀 리그로 진행되었다. 이번 부산광역시팀은 2024년 전국소년체전에 부산 대표로

참석한 학생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였고 아마 7단 온승훈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부산은 제2회, 제5회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였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광역시 2개 팀이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1등, 2등을 차지함으로써 우수한 바둑 실력을 보였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서로의 기량을 인정하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류를 나누었다. 이번 대회의 결과는 부산 바둑의 우수성과 청소년 선수들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

23기 겨울 스포츠교실 진행

1월 6일(월)부터 1월 24일(금)까지 3주간 겨울 스포츠교실이 열렸다. 스포츠교실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인성 함양 및 사회성 발달, 잠재력 발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스포츠 프로그램은 인라인, 골프, 수영과 협동심 및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아이스하키, 야구, 축구, 농구, 댄스 등 단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통해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교실의 미션은 게임에 대하여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알아가는 방법을 스포츠로 알아가는 리더러시와 성장과 팀워크, 사회성 등을 배울 수 있는 바스켓데이가 진행되었다.

23기 겨울 스포츠교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2월에 시즌 2 'with 봄방학'으로 다시 찾아올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클럽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경기는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50개 종목 82개 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인데요. 그중 철인3종 경기가 개최되는 구·군은 어디일까요?
① 영도구 ② 남구 ③ 해운대구

2 부산은 따뜻한 지역에 속해 이 종목의 단체가 활동하기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부산 최초로 이 종목의 초등학교 운동부가 창단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① 컬링 ② 쇼트트랙 ③ 스키

3 『부산체육』에서는 전문체육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번 호 인터뷰에 나오지 않은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① 검도 ② 테니스 ③ 스노우보드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2025년 전국체전에서 ○○구는 스포츠와 바다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의 자연환경은 근대5종(수영, 육상, 사격, 펜싱, 장애물), 철인3종(수영, 자전거, 마라톤) 등 다양한 종목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경기장 밖 부산> 20쪽

2 **힌트** 광남초등학교 ○○부는 2022년 7월 13일, 알파인 선수 2명, 크로스컨트리 선수 3명(바이애슬론 병행) 총 5명의 선수로 부산 최초 ○○부를 창단했다.
<푸른 바다, 큰 꿈> 15쪽

겨울 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포츠 ○○. 하얀 눈 위를 미끄러지다 보면 매서운 추위는 어느덧 잊게 된다. ○○에서 파생된 다양한 종목들은 동계올림픽 인기 종목이다.
<종목 소개> 38쪽

3 **힌트** 전문체육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체육인>, <금빛 훈련일지>, <푸른 바다, 큰 꿈>, <함께하는 부산체육>
목차 2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5.2.17.(월)~2025.2.28.(금)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76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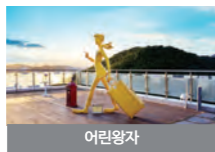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AP-01 라운드 긴팔 BLACK
SS 숏스탑 반바지 BLACK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스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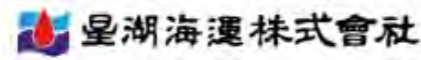
프로 선수의 스포츠웨어, 어썸스타

KEEP GOING

롯데디자인츠 선수
No.21 박세웅
<https://awesomestar.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다대포(아미산 전망대)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드넓은 백사장과 갈대밭,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합니다. 아미산 전망대에서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경을 내려다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껴실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자연의 콜라보, 부산

강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갈매기와 철새가 함께 나는 곳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기다린 끝에 맞이하게 되는
해와 강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낙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대포만의 풍경을 연출하죠.
부산이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대포라는 작품

부산을 사랑합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 '부산을 사랑합니다' 광고는 BNK부산은행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홍보모델 'B-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촬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이제, 당신의 스포츠로 돌아가십시오!

스포츠 재활을 통한 경기력 향상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최첨단 시설



맞춤형 재활계획



체계적 접근방식



입증된 성공사례

전국 유일!
 등속성측정장비 보유 학교기업!

- 1 근력 및 지구력의 정밀한 분석
- 2 재활에 따른 즉각적 피드백 제공
- 3 신체 부위별 객관적 평가 및 맞춤형 훈련 장비
- 4 수술 후 부상 회복을 위한 최적의 재활장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54 동의과학대학교 스포츠재활센터
 TEL 051. 860. 3256 WEB <http://sportpt.dit.ac.kr>



DIT 스포츠재활센터
 SPORTS REHABILITATION CENTER